

광주시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 선제 가동

전국적으로 응급실 과밀과 환자 이송 지연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가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뱅뱅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구축하고, 응급환자가 적정시간 내 최적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이송부터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구축, 고도화해 현장에 도입했다.

이 플랫폼은 700여개 항목에 달하는 응급의료 자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질환별 진료가능 여부 ▲병상 현황 ▲의료진·장비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한다. 이를 통해 광주 전역의 응급의료 자원이 하나로 연결돼 환자 이송과 치료 결정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은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현재 수술이 가능한 병원 ▲가용 병상 여부 ▲응급실 대기 환자 수 ▲이송 중인 환자 위치 등 응급환자 이송과 진료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 도입으로 21개 응급의료기관이 하나의 병원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응급환자는 응급실 도착 즉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필요하면 응급의료플랫폼 내 환자 전원 기능을 활용해 수술·시술 등 최중증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지체 없이 연동된다.



환자 이송·전원·최종치료 연계 모바일 플랫폼 구축 실시간 응급의료 자원정보 공유로 '골든타임 확보' 광주형 모델, 전국 표준 응급의료체계로 확산 건의

광주시는 특히 분초를 다투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최종 치료를 위해 '광주시 응급환자 이송지침'과 응급의료플랫폼을 연계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팀'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Pre-KTAS 1, 2) 수용이 어려운 경우, 119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광주형 응급의료플랫폼'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급 6개 의료기관의 당직의사가 공동으로 대응한다. 다수의 전문의가 함께 의사 결정을 통해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선정되도록 하는 등 '응급실 뱅뱅이' 문제를 제로

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응급실 과밀과 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정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광주시는 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1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사용자 실습 교육과 현장 교육을 모두 마쳤다.

광주시는 또 선도적으로 구축한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국정과제 및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연계해 발전시켜나갈 계획

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의 협력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4일 화순남대병원 김재봉총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응급환자 이송지침 간담회'에서 광주가 선도적으로 구축한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을 전국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시스템"이라며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해매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이 광주를 넘어 전국 표준 응급의료체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전남교육청,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 2026학년도 유·초·중·고 학급 편성... 총 1만 664학급 확정

전라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한 '2026학년도 유·초·중·고등학교 학급수'를 총 1만 664학급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142학급, 초등학교 5,023학급, 중학교 2,196학급, 고등학교 2,303학급이 각각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이 11학급 줄어든 수치다. 반면, 고등학교는 4학급이 증가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도내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 18만 3,369명에서 올해 17만 6,598명으로 6,771명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수가 4,480명 감소하며 전체 감소폭의 66%를 차지했다.

이번 학급편성은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맞춤

형 교육여건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 대비 0.6명 줄어든 평균 14.3명 수준까지 낮아졌다. 중학교는 20.9명, 고등학교는 19.6명 수준이다. 교육청은 이러한 급당 학생 수 감소 추이를 고려해 개별 맞춤형 교육과 학생 성장 단계별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도 학생 한 명의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교육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향후 학생 수 추이와 교원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미래교육에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시, 민원서비스 2년연속 '최고'... 특광역시 최초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고등급... 장관 표창·재정 특전 획득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 특·광역시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특전(인센티브)을 받게 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곳, 광역지자체 17곳, 시·도 교육청 17곳, 기초지자체 22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광주시를 포함한 32곳이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광주시는 5개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등 2개 항

목에는 만점을 획득했다.

광주시는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공정하고 신속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협업, 민원소통 체계 구축, 불필요한 서류 감축 등에 힘썼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진행상황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답변 지연을 방지했고, 매일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해 민발 민원을 발굴·관리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집단 고충민원은 접수 시 현장 조사와 간담회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부서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민원 해결에 힘썼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소통플랫폼 '광주온(ON)'과 '시민권익위원회'를 운영하며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광주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서류 5종(주민등록증·초본 등)을 필수 지참 서류에서 제외해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

이승원 기자

"왜 돈 안 빌려줘?" 또래 폭행, 영상 유포한 중학생

광주 북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과 지난달 1일 광주 북구 놀이터 등지에서 또래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초등학교 동창 사 이인 B군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폭행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지에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나서 A군 등을 특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촉법소년인 A군 등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송현근 기자

주말 광주·전남, 강추위 찾아온다... 체감온도 '영하 17도'

이번주 광주·전남은 체감온도가 영하 17도에 이르는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온다.

5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6일부터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예상 적설량은 전남 서해안 2~7cm, 광주와 전남 서부 1~3cm로 예보됐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짧고 강한 추위로 인해 기온변화가 크게 나타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 주말부터 눈이 내리는 지역은 빙판길 및 도로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4도~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7도~영하 17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낮 기온도 영하권(영하 3도~

영하 2도)에 머물며 한파가 이어지겠다.

또 상층의 영하 40도 안팎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예상 적설량은 전남 서해안 2~7cm, 광주와 전남 서부 1~3cm로 예보됐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짧고 강한 추위로 인해 기온변화가 크게 나타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 주말부터 눈이 내리는 지역은 빙판길 및 도로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광주시, 설연휴 감염병·식중독 비상대응체계 가동

14~18일 검사 인력·장비 상시 가동... 24시간 연락체계 유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연휴 기간 지역 내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비상대응체계는 명절 기간 해외 여행, 가족 모임 등 대규모 이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해외 유입 감염병 및 집단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기간 비상대응요원반을 구성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감염병 실험실은 검사 능력이 확보된 인력과 장비의 상시 가동 체계를 운영해 지체없이 신속·정확한 진단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

전민규 기자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시설·진단 장비 사전 점검을 진행해 연휴 기간 감염병·식중독과 관련한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규명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자치구 감염병관리부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에 독감 등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과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연휴 기간 기침 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 등의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당부했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